

넉 달 남은 수능...수시 전략 잡고 영역별 기본기 다질 때

고3 수험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자신의 성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수능시험(11월 17일)까지 약 12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름방학은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여름방학을 보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교육청이 추천한 일선 고교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입 수험생의 여름방학 수준별, 영역별 전략을 들어봤다.

◇국어, 새로운 지문·문제의 면역력 키워라=한선의 문정여 고교 교사는 “올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 1등급 컷이 90~93점에서 형성됐다”



한선희 교사

면서 “11월 수능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해 보게 하는 점수”라고 분석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문 교사 설명이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문법·독서 부문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6월 모·평에서 낮은 유형에 당황했던 학생들일수록 고난도 문제와 다양한 유형에 면역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방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문 교사 분석이다.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방황하고 있을 틈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법·작문·문법 영역에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 철저한 개념 학습이 필수적이며 반복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도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독서 영역에 취약하다면 독해력을 기우면서 기술 문제 지문 중 자신이 취약한 영역의 지문들을 요약해 정리하는 훈련, 자주 틀렸던 문제 유형에 대한 반복적인 풀이를 주문했다.

현장 교사가 전하는 국영수 전략

국어, 틀린 문제 반복 풀이

영어 하위권은 EBS 듣기 훈련

수학, 5년간 기출문제 훑어봐야

문 교사는 성적이 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이 도약을 위한 도움단기의 시간이 되어줄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질 때라고 격려했다. 수능시험이 EBS 교재와 70% 연계하는 만큼 연계 교재에 실린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적인 문제 풀이 연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 변별력 갖춘 문제 출제 염두에 뒤야=오창욱 광주대 동고 영어 교사는 올 수능 영어 시험의 변별력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예상되므로 고난도 문제 풀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유형인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주문했다.



오창욱 교사

빈칸 추론 문제는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고 핵심어(구)나 절을 추론하는 문제로, 영어 과목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

항으로 꼽힌다. 수능 영어 시험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오 교사는 “빈칸 추론 문제의 경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지문의 다른 곳에 유사한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비슷한 표현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어진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배열 문제의 경우 주어진 문장이나 본문에 제시된 단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수를 최소화하는 연습도 병행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지문의 중심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공부법을 택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실전에 대비, 목표 점수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빈칸 추론이나 주어진 문장 삽입 문제 등 까다로운 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보다는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풀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오 교사 주문이다.

오 교사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라면 “17문항을 차지하는 듣기 영역에서 최대한 많이 득점할 수 있도록 EBS 듣기 교재의 대본 패턴을 읽히는 공부법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수학, 취약 유형 분석해라=박영주 전대사대부고 교사는 “수험생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정리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를 훑어보면서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보고 자신이 약한 단원이 어느 쪽인지, 어떤 문제 유형을 까다롭게 생각하는지 냉



수능시험(11월 17일)까지 약 12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고3 수험생에게 여름방학은 중요한 기회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박영주 교사

철하게 분석한 뒤 정리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가/나형으로 나뉘고 출제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이 올 수능시험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데다, 일부 고난도 문항을 출제해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갖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다.

박 교사는 최고난도 문제를 정복하지 못

하면 1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출제된 문제들 중 최고난도 문항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출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과 출제 의도를 분석해보면서 문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 등으로 실전감각을 길러야 할 시기라고 삼을 것을 제언했다.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위주로 기본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할 것을 조언했다. EBS 연계 교재와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이하고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익혀 실수를 줄이는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는 게 박 교사의 전한 ‘팁’이다.

낮은 성적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라면 교과서 및 기본서를 뒤적여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EBS 연계 교재의 예제, 유제 등 쉬운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성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교육청 ‘수시 대입박람회’서 알토란 정보 연자

23~24일 김대중센터

고3 수험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9월부터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이 시작된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관련 입시 정보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광주교육청이 오는 23일부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개최하는 ‘수시 대비 대학입시박람회’도 이같은 학부모 및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학원 설명회에서 들을 수 없는 ‘실속있는’ 대입정보가 가득한데다, 대학 입학사정관 얘길 직접 듣는 기회라는 점에서 수험생·학부모들의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81개 대학(수도권 24개대·호남권

19개대·중부권 10개대·영남권 12개대·전남대 13개대)이 120개 부스에서 입학전형과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과 1대 1로 상담하는 시간이 마련되는가 하면, 대학별 수시 전략 설명회도 열린다.

이외 EBS 강사가 대입지원전략 및 수능 대비 국·영·수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회도 열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교수의 특강,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생생 토크’, 모의면접 등의 코너도 마련된다.

김형진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최신 입시정보를 지역 내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맞춤형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람회 주요 일정

EBS 대입전략 설명회	23일 오후 2시
대교협 대입전략 설명회	24일 오전 10시
서울대 김경범 교수 학생부 전형 특강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 입시설명회	23일 오후 4시
연대 입시설명회	24일 오후 1시
고대 입시설명회	24일 오후 2시
학생부종합전형 생생토크	24일 오후 3시
2017~2019학년도 대학별 수시 설명회	23~2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23~2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자료:광주교육청>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미스코리아 요람

올 4명 등 2008년 이후 15명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인기는 대단하다. 전국 최고 스타우티스 및 항공사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로 알려지면서 단일 학과에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정도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왔다.

외모에서도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각종 미인 대회 입상자들도 적지 않다.

18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항공서비스학과 출신으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뽑힌 학생들은 모두 15명에 이른다.

올 해 열린 대회에서만 신아라(21·항공서비스학과 2년)씨가 선에 선발된 것을



신아라씨

손지현씨

비롯, 손지현(23년)씨가 미스코리아 세종·충북 미 및 포토제닉상을 받았고 김현민(2년)씨는 미스코리아 제주 포토제닉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졸업한 이효진씨는 미스코리아 경기 선으로 뽑혔다. 학교측은 2008년 3명이 선발된 이후 2009년 1명, 2012년 5명, 2014년 2명 등 꾸준히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1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21일부터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경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인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대학양성평등위원장’에 장하경 교수

장하경(사진)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최근 임기 3년의 대학교육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학교육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국·공립대의 양성평등계획 및 실적 평가,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문기구로 구성한다.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